호텔신라 '드림메이커', 폭염에 힘든 이웃 도와

서울·제주 청소년 멘토링프로그램
어르신들 찾아가 간식·음료 전달해

'드림메이커' 8기 나눔봉사. /호텔신라

방학을 맞은 고등학생 160여 명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외이웃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호텔신라는 서울과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드림메이커' 8기를 진행, 참여 학생들과 함께 폭염에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드림메이커'를 통해 배운 조리, 제빵 등의 실력을 발휘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제주지역 학생 80여 명은 7월 30~31일, 이틀 동안 어르신들께 간식으로 드릴 샌드위치와 컵과일을 직접 만들고 포장해 제주시 소재 복지시설 3곳을 찾아가 전달했다. 또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지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운을 북돋았다.

서울지역 학생 80여 명은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접 4600개의 수제 동그랑땡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공장에서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천이나 끈 등을 활용해 생활소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함께 제작하는 시간도 가졌다.

호텔신라는 2014년부터 서울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드림메이커 학생들이 참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약 1280여 명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쪽방촌 주민들 위한 생수 지원 확대

하이트진로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생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 쪽방촌 700세대에 생수 1만4000여병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추가로 6000여병을 긴급 지원했다. 남은 여름 동안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쪽방촌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생수 지원이 폭염 취약 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의 무더운 여름나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매년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과 사랑의 쌀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지난 2일 하이트진로가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생수 6000여병을 긴급 지원했다. /하이트진로

LG생활건강

'빌려쓰는 지구 대학생 캠프' 개최

LG생활건강은 지난 3~4일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전국 대학생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빌려쓰는 지구 대학생 캠프'를 개최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지난 3~4일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도전과 열정, 배움, 나눔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공헌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1회 빌려쓰는 지구 대학생 캠프'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 31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CSR, 멘토링 등을 통해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자기 성장의 계기가 됐다.

외부 전문가의 CSR 특강으로 시작된 캠프는 LG생활건강 임직원이 참여하는 진로 토크쇼, LG생활건강의 사회공헌 활동인 '빌려쓰는 지구스쿨' 소개 및 체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진행됐다.

'톡! 톡! LG임직원과 함께 하는 꿈 찾기 토크쇼'에서는 화장품·영업·디지털커머스 분야 임직원들이 '1일 진로 상담사'로 변신해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대학생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줬다.

캠프 참가자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빌려쓰는 지구스쿨'도 체험했다. 빌려쓰는 지구스쿨은 누구나 할 줄 알지만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기본적인 일상습관을 개선하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국내 최초 융합형 습관교육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8개 수업 과목 중 3개 과목인 '도전 뷰티 전문가', '올바른 양치습관',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 등을 직접 경험하고 친환경 생활습관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줄 별별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일자리, 환경, 청소년 교육, 사회안전 등 6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의 생각과 해법을 조별 경쟁 PT를 통해 치열한 경연을 벌이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사회 문제를 깊게 고민하는 자리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운세

8월 6일 (음 6월 25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믿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60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72년생 가는 사람을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84년생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해라.

소 49년생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근심을 걷어간다. 61년생 가끔은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으니 외모에 신경. 73년생 친구가 조언을 해주니 일이 잘 풀린다. 85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

호랑이 50년생 만사가 귀찮고 심드렁한 날이다. 62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규칙적인 운동과 먹는 것에 유의. 74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면 보답을 받는다. 86년생 오늘의 결정이 내일을 기쁘게 할 것이다.

토끼 51년생 올바른 처신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63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궈서 돌아오니 흡족한 결과. 75년생 아랫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87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

용 52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 64년생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해가 되니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76년생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과 상의. 8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뱀 53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 65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을 다해라. 77년생 가족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날. 89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노력 또 노력.

말 54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생각. 66년생 몸이 피곤한 날이나 재물 운은 있다. 78년생 욕심을 부리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90년생 만물이 생동하니 나도 행동을 해야 한다.

양 55년생 변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67년생 조언도 들을 사람에게 해야 빛이 나는 법이다. 7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매사 조심. 91년생 동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원숭이 56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모두가 힘들다. 68년생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을 새겨들어라. 80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이 다한 것이다. 92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음이니 인내가 필요.

닭 57년생 친척의 초대로 즐거운 날. 69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81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93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항상 순서대로 차분히 행동하라.

개 58년생 삶은 평화로우나 마음은 지루하다. 70년생 도움을 줬던 친구가 은혜를 갚으러 오니 보람을 느낀다. 82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 버려두자. 94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 집착을 버려라.

돼지 59년생 아직은 꿈을 포기하지 마라. 71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이나 신발에 신경 써 보자. 83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95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니 더 분발해야 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3				7
	1	4	8		6	9	2	
		8				3		
		1	5	7	9	6		
	8		2		5		6	
	4	5				8	3	
		2		6		1		

		2	3		7	9		
7								5
		8	1		4	5		
	9						6	
	4	7	6		9	8	3	
1			4	6	2			3
9								6
	3						8	

스도쿠 정답

8	3	9	7	2	4	5	1	6
2	5	6	9	3	1	4	8	7
7	1	4	8	5	6	9	2	3
5	6	7	4	8	3	2	9	1
4	9	8	6	1	2	3	7	5
3	2	1	5	7	9	6	4	8
1	8	3	2	4	5	7	6	9
6	4	5	1	9	7	8	3	2
9	7	2	3	6	8	1	5	4

8	5	3	9	4	1	6	2	7
4	6	2	3	5	7	9	1	8
7	1	9	2	8	6	3	4	5
6	2	8	1	3	4	5	7	9
3	9	1	5	7	8	4	6	2
5	4	7	6	2	9	8	3	1
1	8	5	4	6	2	7	9	3
9	7	4	8	1	3	2	5	6
2	3	6	7	9	5	1	8	4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공부 잘하는 총명한 사주

며칠 전에 상담을 온 K씨는 자녀의 진학문제가 현재의 초관심사다. 올해 18살인 경인생(庚寅生)의 아들은 총명함과 학문에 두각을 나타내는 문창 운이 들었기에 지금까지는 학교공부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워낙 대학입시는 변수가 많고 입학과정 역시 제도가 복잡하여 공부를 잘한다 해도 시험은 운이 작용함을 K씨는 큰 아이의 경우에서 겪었던지라 신중하고 싶었다. K씨의 아들은 음력 9월 병술월로서 대운에서는 20세 초반까지가 본인에게는 정관과 용신이 되는 수(水)와 금(金)이 들어오니 학창시절엔 수재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일지에 축(丑)이 들었으니 사주명식의 기본적인 기운에 충(沖)이 들어 스카이에서 S 대를 가기에는 장애가 따른다. 입시 때는 분명 갑절로 힘이 든다. 따라서 대학을 결정할 때 자신과 합이 드는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학부모들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은 물론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 자녀들의 학과성적은 그 가정의 희비의 쌍곡선이 되는 것이다. 자녀들의 교육열 높기로는 유태인들과 중국인들도 한 명성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 인구수도 적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한국민들의 교육열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한결같은 학력에 대한 사랑과 동경에 대한 관념은, 자신들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자식들의 성적과 좋은 대학에의 진학여부는 부모들의 어깨를 올라가게도 시름에 젖게도 만드는 것이다. 필자의 여러 임상과 경험을 통해볼 때 다른 건 몰라도 공부운 만큼은 타고나는 것이다. 공부 운(運)이 좋은 문창성을 잘 타고 난다면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공산이 높다. 그러므로 일생을 평탄하게 지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무리 학벌이 좋은 수재라 할지라도 운 좋은 놈 앞에선 당할 재간이 없다는 말이 있다. 사실 운이 좋다는 것은 요행이 아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다생동안의 선한 업력이 운으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복덕이 좋기를 바라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복덕을 쌓는 일엔 반드시 그 대가가 몇 배가 되기 때문이고, 내가 공부는 열심히 못했다 하더라도 복덕은 마음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내가 행하는 말과 뜻과 행동은 바로 나의 미래의 복력의 원천이 됨을 알아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